대한지리학회지 제51권 제4호 2016(559~576)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개념의 함축과 「세계지리」 과목에서의 실천 방안

전종한*

Implications in UNESCO's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and Its Application to the 「World Geography」 Subject

Jong-Han Jeon*

요약 : 21세기 초 유네스코(UNESCO)의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과 함께 '문화 다양성' 개념은 교육, 과학, 문화 부문에서 국제 사회의 핵심 개념이자 화두로 부상하였다. 그런데 문화 다양성 개념은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개인 학자와 기관에 따라 여러 용례로 유통되었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개념이 지닌 함축에 대한 특별한 이해를 선행하지 않고서는 교과목 수준의 적절하고 올바른 교육적 이행을 추구할 수가 없다.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에 제시된 문화 다양성 개념의 궁극적 지향점은 '세계 평화'와 '다양한 인류 문화의 공존'이다. 이 점에서 그것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무엇보다 '교육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더구나 국제 사회의 지리교육계가 지난 2000년 세계지리학 대회를 계기로 「문화 다양성을 위한 지리교육 국제 선언」을 내놓은 만큼, 「세계지리」 과목을 사례로 문화 다양성 교육의 실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네스코의 관련 문헌들을 분석하여 문화 다양성 개념이 지닌 함축을 '이념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표상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비전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인식의 미학적 전환으로서의 문화 다양성'의 네 가지 층위에서 해석한 다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지리」 과목 입장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의 예시와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적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이념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표상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비전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인식의 미학적 전환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세계지리」 과목

Abstract :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has emerged as a key concept and the buzzword of the 21st century's international community in education, science and culture sectors since UNESCO's 「World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2001). However, the appropriate and correct implementation in educational level and in a subject scale can not be pursued without special understanding of multilateral implications of UNESCO's 'cultural diversity' because the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has been distributed to various applications according to individual scholars and institutions before the 「World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was released. The ultimate orientation of 'cultural diversity', the concept presented in 「World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is 'world peace' and 'the coexistence of various cultures of mankind'. In this regard, 'cultural diversity' has special 'educational' meaning to the next generation as well as the current one. Also, it is meaningful to take educational practices on cultural diversity in case of the 「World Geography」 subject in view of that international society of geographical education came up with 「International Declaration of Geographical Education for Cultural Diversity」 in the IGU(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2000. From this point of view, the author proposes that the 'cultural diversity' concept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onghan@gin.ac.kr

implies four folds of meanings as an ideology, as a symbol, as a vision, and as a epistemological turn based on the analysis of literatures on 'cultural diversity' of UNESCO, then presents an educational practice centering around the examples and its usage of teaching materials of cultural diversity.

Key Words : UNESCO, Cultural Diversity, Cultural Diversity as an Ideology, Cultural Diversity as a Symbol, Cultural Diversity as a Vision, Cultural Diversity as Aesthetic Turn in Epistemology, the「World Geography」Subject

1. 머리말

세계화와 더불어 전지구적 규모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주요 국제기구들과 우리 삶의 거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다. 특히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기관 중 하나인 유네스코(UNESCO)는 세계 평화와 국제 협력을 목표로 인류 전체가 관심 가져야 할 시대적 주요 쟁점들을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유산, 세계시민, 평화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화두들을 던지면서 그동안 국내외의 교육, 과학, 문화 부문의 연구 및 실천 동향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가운데 2001년 유네스코가 주도한「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은 '문화 다양성'을 21세기 지구촌의 핵심 개념이자 새로운 화두로 부각시켰고 개별 회원국 수준의 구체적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네스코가 상정하는 '문화' 개념은 무엇이고, 그 의미가 어떻게 갱신되어 지금에 이르렀으며,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개념이 지닌 함축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세계지리」과목 수준에서 문화 다양성 개념의 교육적 실천 방안을 탐구해 보려고 한다.

유네스코의「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2001)은 문화 다양성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문화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 이러한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 및 사회의 특수성과 복수성을 통해 잘 드러난다. 자연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필수적이듯이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문화 다양성이 집단 및 사회의 교류, 혁신, 창조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이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은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UNESCO, 2001)." 이상의 언명에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오늘날 유네스코는 문화의 시·공간적 다양성을 토대로 자연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갖는 의미에 비추어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동시에 문화 다양성을 '유산'(heritage)의 관점에서 재인식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것이 인류의 공생공존과 발전에 필수 요소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일반론에서 더 나아가, 2009년 유네스코는『문화 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Investing Cultural Diversity and Intercultural Dialogue)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문화 다양성이 전체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지 한층 구체화한다.

문화 다양성은 21세기의 핵심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세계 각 지역의 문화집단들이 상호 교류와 대화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그 풍요로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보면서 문화 다양성을 그 자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에 다른 어떤 이들은 문화적 차이란 결국 여러 가지 갈등의 근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문화적 차이로 인한 긴장이나 종교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의 사례가 적지 않고,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에서 잠재적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회의적 입장에서 말한다. 결국 문화 다양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것이 내재한 잠정적 위협을 어떻게 떨쳐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문화 다양성을 지구촌의 인류 공동체에 이득이 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인류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UNESCO, 2009).

유네스코는 '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긍정적 가치를 알게 하고 교육과정과 교사 교육을 통해 그것을 확산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UNESCO, 2002, 6). 물론 문화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유네스코만의 배타적 개념이 아니다.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통해 유네스코가 문화 다양성 개념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이전에도, 이미 개별 학자 수준에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맥락에서 언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1] 하지만 적어도 21세기 이후 국내외의 교육과 법률, 제도 부문에서 부상하고 있는 문화 다양성 개념은 다분히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2001)에 기초한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문화 다양성의 교육적, 현재적 의미를 유네스코의 용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유네스코가 문화 다양성 개념을 매개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세계 평화'와 '다양한 인류 문화의 공존'이다. 이 점에서 그것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무엇보다 '교육적으로'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제도 교육 영역에서 문화 다양성 개념의 교육적 실천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크게 미흡한 형편이다. 무엇보다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개념을 심도 있게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결과적으로 개념적, 이론적 토대를 다지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교육적 실천 방안이 부적절하였다는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들은 '문화 다양성'을 기존의 다문화 교육에서 말하는 '다문화' 개념과 동의어인양 간주하면서 양자를 무분별하게 혼용하는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e.g. 이기숙, 2008; 이길용, 2011; 이은희, 2014; 박윤경 외, 2015; 임진영 외, 2015). 어떤 학자들은 문화 다양성 교육을 표방하면서도 정작 문화 다양성 개념을 젠더, 성 취향, 장애 등의 문제로 지나치게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기존 다문화 교육의 주요 주제들을 침범하거나 불필요한 개념 논쟁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문화 다양성 교육과 다문화 교육은 양자 모두 문화 및 문화집단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 부문에 담아내고자 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교집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두 분야의 차별성에만 집착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일 수 있다. 그 대신, 전자가 '글로벌 스케일에서 인류 문화의 공존과 평화'를 목표로 삼는 반면 후자는 '국민국가의 바람직한 시민성'에 접근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양자의 교육적 기능 및 기본 취지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두 분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보다 유익한 일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문화 다양성은 곧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출발한 논의가 나중에 가서는 인권에 대한 이야기로 잘못 도착하기도 한다. 인권이 문화 다양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지 아니면 문화 다양성을 통해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목적인지를 혼동하는 탓이다.[2] 문화 다양성 개념은 유형문화, 무형문화, 정신문화, 물질문화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상위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자나 기관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과 동일시하거나 주로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에 집착하면서 문화 다양성의 의미를 예술(arts)이라는 한정된 측면에 구속시켜버리기도 한다(e.g.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a; 2012b; 2014a; 2014b). 심지어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 문서에서조차, 문화 다양성 개념은 기존의 '다문화'에 대한 단순 대체 용어이거나, 혹은 근거가 불분명한 의미로 쓰이는 용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e.g. 교육부, 2015, 31, 132, 133, 249, 250, 276).

이러한 혼란과 문제점들을 목격하면서 연구자는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개념이 적어도 교육, 문화, 과학계에서 국제적 지침 내지 표준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이 개념이 갖는 교육적 함의를 천착해 보려고 한다. 유네스코의 여러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개념은 '문화'와 '다양성'이 기계적으로 조합된 것에 불과한 용어가 아니다. 피상적으로 그저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게 된 사회 현상', 즉 다문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도 아니다. 적어도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개념은, 문화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양함을 인식하고자 하

는 모종의 '의지'이고, 다양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려는 하나의 '지향'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유네스코의 관련 문헌들에 근거하여 문화 다양성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몇 가지 의미 층위를 탐구해볼 것이다. 이를 준거로,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에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명시한 고등학교 「세계지리」 과목을 사례로 과목의 목표와 성격, 성취기준 등에 반영된 문화 다양성의 의미 양상을 분석해 보고 교육적 실천을 위한 자료의 예시와 그 활용 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2.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과 '문화 다양성'의 의미 함축

1) 문화 개념의 갱신과 '문화 다양성' 개념의 등장

문화는 유네스코의 창립 초기부터 이 기구의 주된 관심사였다. 1947년의 「결의안」(UNESCO, 1947) 내용 중 '문화적 교류'(cultural interchange)에 관한 부분을 참조할 때, 당시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은 다분히 예술과 문학 영역에 한정되어 정의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3] 그러나 1982년 멕시코 회의를 통해 도출된 「문화 정책 선언」(UNESCO, 1982)에 이르러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은 다음과 같이 갱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문화는 어떤 사회나 사회 집단을 다른 집단과 차별화시켜주는 정신적, 물질적, 지성적, 감성적 특징으로 이루어진 고유한 복합체이다. 문화는 단지 예술과 문학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삶의 방식, 인간 존재로서의 기본 권리, 가치 체계, 전통과 믿음을 포괄한다(UNESCO, 1982, 1).[4]

이 선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문화는 인류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회집단을 식별하는 기본 단위가 된다. 무엇보다도, 이전의 「결의안」(1947)에 제시된 문화 개념의 한계를 유네스코 스스로 고백하면서 '문화 개념을 예술과 문학 영역에 한정하지 말자.'고 반성한다. 그 대안으로, 예술과 문학을 중심으로 협소하게 정의했던 과거의 문화 개념을 넘어서 인간 삶의 다양한 측면들에 걸쳐 있는, 정신과 물질과 지성과 감성이 결합된 고유의 총체로 확장시켜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그 뒤의 다른 자료에서 문화 다양성이란 다음과 같은 측면들의 다양성을 '주로' 지칭한다고 부연하면서, 문화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추상화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개념 명료화를 시도한다. 첫째 문화적 실천들(의례, 생산 체계, 지식의 전수 체계 등), 둘째 삶의 방식(제도, 관습, 토지 경작 방식 등), 셋째 가치 체계(종교, 윤리, 정신, 신념, 세계관 등), 넷째 지식과 기술, 언어, 예술적 표현(예술, 건축, 문학, 음악 등)이 그것이다(UNESCO, 2007, 7). 요컨대 유네스코가 말하는 문화 다양성이란 '글로벌 규모에서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한 삶의 양식들에 뿌리를 둔',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 정책 선언」(UNESCO, 1982)은 인간에게 문화가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문화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능력을 갖게 한다. 문화는 냉철한 판단력과 도덕적 감각을 키워줌으로써 인간을 특별히 인간답게, 이성적 존재로 만들어준다. 우리가 가치를 분별할 수 있고 선택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문화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표현하고, 우리 자신을 알아가며,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깨닫고, 우리의 이룬 바에 대해 의문을 품고, 새로운 의미를 추구하며, 자신의 한계를 초월한 작품을 창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문화를 매개로 가능한 것이다(UNESCO, 1982, 1).[5]

여기서 주목되는 내용은, '인간은 문화를 통해 비로소 자신을 회고할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우치며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화가 우리 자신의 성취와 한계, 나아가 우리의 정체성과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뜻으로, 이 말은 서로 다른 문화들 간의 교류의 가치, 타문화에 대한 존중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선언문을 이해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은 '문화 정체성'(cultural identity)과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다. 이 선언문은 기존의 문화 개념을 재개념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롭게 갱신된 문화 개념을 토대로 '문화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이라는 복합어를 도출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각 사람의 문화 정체성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전통 및 가치와의 만남을 통해 거듭날 수 있듯이, 각각의 문화는 타문화의 가치 및 전통에 대한 경험과 평가, 사상의 상호 교류를 통해 더욱 풍성해진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보편적'이라 일컫는 현상도 기실은 우리 자신의 문화 정체성을 자각하는 가운데 세계 모든 인류의 경험을 접할 때 비로소 규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점에서 문화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UNESCO, 1982, 1-2).

2) '문화 다양성'에 함축된 다층적 의미

오늘날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에 제시된 문화 다양성 개념은 여러 가지 은유를 통해 설명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구체적 이행을 위한 토대 개념(a conceptual platform)이라든가, 실천을 위한 사상(a pool of ideas for implementation), 새로운 패러다임(a new paradigm), 미래를 위한 비전(a vision), 인류의 공동 유산(the common heritage of humanity) 등등의 은유적 설명들이 그것이다(UNESCO, 2002, 2). 이들을 종합해볼 때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개념에 함축된 의미는 다층적 측면에서 인지될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다층적 의미들 중에서도 특별히 교육적으로 주목되는 몇 가지를 추출하여 각각 '이념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표상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비전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인식의 미학적 전환으로서의 문화 다양성'으로 표제화해 보았다.

(1) 이념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생물 다양성의 이념에 기초한 아날로지'

지구상에서 인류를 포함한 유기체, 식물, 동물, 박테리아 등의 모든 생물들은 복잡하고 섬세한 관계로 연결된 채 서로 의존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다. 상호의존적 연결망으로 된 생태계 안에서 어떤 한 요소의 훼손은 이와 연결된 다른 요소의 훼손을 일으키고 이런 식의 연쇄적 과정은 생태계 전체의 지속성에 예측 불가능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들 및 종 내부의 유전적 다양성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해 온 결과이고, 그들의 진화는 그러한 유전적 다양성의 도움으로 가능하였다. 국제사회가 이러한 이념을 공유하면서 자연계에서 다양성이 갖는 의미와 가치를 국제적 수준에서 공인한 것이 1993년의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다.

2001년 유네스코는 '생물 다양성' 개념과의 상사 관계를 들어 '문화 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한다. 그 요점은, '문화 다양성은 상호 교류, 혁신, 창조성의 원천으로서 생물 다양성이 자연계에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문화 다양성은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 제1조에 명시된다(UNESCO, 2001). 이처럼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개념은 생물 다양성의 이념에 착근한 아날로지(analogy)로서, '인류 문화의 다양성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응답하는 특별한 입장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요약하자면,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개념은 단일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다양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겠다는 특정한 의지를 담은 입장으로서, 하나의 이상(idea)이자 지향(orientation)인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이념(ideology)의 범주에 속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류 문화는 지구상의 서로 다른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서 분화를 거듭해왔다. 이념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개념은 '다양성이란 다양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남은 적응력이고, 현재의 건강한 생존을 위한 생명력이며, 미래의 지속성을 위한 잠재력이자 창조력'이라는 생각을 지지한다. 반면에 다양성의 대척점에 위치한 단순성 내지 단일성은

적응력, 생명력, 잠재력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다보니 종종 '문화 다양성'이라는 표현은 인류 문화의 미국적 획일화, 전지구적 단순화, 문화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모토로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대중문화의 세계화와 미국화를 선도하는 미국이 2005년 유네스코가 주도한「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관한 국제 협약」에 반대했던 것도 그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참고로 이 협약은 찬성 148, 반대 2, 기권 4개국이라는 압도적 지지 위에서 통과되었는데, 여기서 반대한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이었다.

또한 이념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개념은 '지구상의 인류 문화의 다양성과 생물계의 다양성이 서로 별개의 세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고를 견지한다. 말하자면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일수록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도 풍부할 것이라는 사상인데, 이를 토양삼아 '생물문화 다양성'(biocultural diversity)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Maffi, 2001, 1-11). 이 사상은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한다. 이 가설은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분포도와 언어다양성 분포도를 서로 중첩시켜볼 때 언어다양성이 풍부할수록 생물 다양성도 풍부한 경향이 있다.'(UNESCO, 2003, 12)는 몇몇 상징적인 연구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2) 표상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인류의 지식, 경험, 가치를 품은 공동 유산'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2001)에 의하면, 문화 다양성은 상호 교류와 혁신과 창조의 원천으로(제1조),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한 우리의 선택권을 넓혀준다(제2조). 왜냐하면 문화 다양성이란 다양한 환경 속에 적응하면서 축적한 각 문화 집단의 경험과 지식, 가치와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 표상하고 있는 인류의 경험과 지식과 열망은 보존할 가치, 제고될 가치, 미래세대에 전수할 가치가 있다고 이해되고 있다(제7조).

문화 다양성을 이처럼 표상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한다. 하나는 문화 다양성을 드러내는 각종의 문화 상품 및 관련 서비스들을 여타의 상품과는 다른 성격의 것으로 인식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원래 1993년 프랑스에 의해「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 도입된 개념에서 발전한 것이다(박동준, 2010, 71). 즉 문화 관련 상품 및 서비스는 한 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자칫 폄하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다른 일반 무역 상품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여서 '문화 다양성은 곧 쿼터(quota) 제도'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표상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개념을 두껍게 읽지 못하고 단지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태도일 뿐이다.「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제8조에 명시된 바 '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각종의 문화 상품 및 관련 서비스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각 문화집단의 정체성과 고유한 가치관, 의미 세계를 보여주는 벡터(vectors of identity, values, and meanings)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을 우리는 심오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문화 다양성이란 인류 문화의 단순한 흔적이나 과거의 유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인류의 경험, 지식, 지혜, 정신을 담은 보고로서 인류가 함께 가꾸고 보존해야 할 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으로 재인식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수용하면서 그동안 국제사회는 세계유산(world heritage)이라는 인류 공동 유산을 발굴·공유해 왔고, 이것의 선정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s)의 정의를 계속 다듬는 한편 세계유산의 의미 확장과 범주의 다변화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인류 유산에는 가시적, 물질적 범주뿐만 아니라 정신적, 무형적 범주까지 포함한다.'는 방향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고, 나아가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서로 별개의 범주일 수도 있지만 양자가 서로 교차하는 특별한 범주의 세계유산도 설정해볼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도달하였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접점에 자리한 것으로 이해되는 '세계 문화경관 유산'(world heritage 'cultural landscapes')이라는 범주가 그것이다. 세계 문화경관 유산은 유형 문화와 무형 문화, 자

연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가 단일 유산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특별한 범주의 유산인 것이다(전종한, 2013, 935). 이러한 세계 문화경관 유산은 표상으로서의 문화 다양성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3) 비전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에 의하면 문화 다양성은 현재와 미래 세대에 유익한 것이다(제1조). 문화 다양성이 현재와 미래 세계에 유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거기에서 인간과 환경의 공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집단들 간의 대화와 조화로운 상호 교류를 통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제2조).

문화 다양성은 인간과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제3조). 여기서 말하는 '발전'이란 단지 경제적 관점의 발전뿐만 아니라 '문화 다양성이 보다 만족스러운 수준의 지적, 정서적, 도덕적, 정신적 성장에 이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제3조).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 다양성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인류의 평화,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약속하는 하나의 비전(vision)으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현재와 미래를 위한 창조력이란 반드시 문화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성장하기 마련인데, 문화적 전통은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교류를 통해 더욱 풍성해진다(제7조). 이 조항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각 문화집단들이 구축해온 토착 지식(local knowledge)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문화들 사이의 상호 교류의 필연성과 중요성에 주목하게 한다. 전자를 통해 우리는 글로벌 스케일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고, 후자를 통해서는 다양한 문화 간의 교류가 인류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동력이었다는 점을 재발견할 수 있다.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점은 이미 1982년의 「문화 정책에 대한 선언문」에서 언급되었지만, 당시에는 말 그대로 선언적인 성격이 강했다. 문화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요소라는 것에 관한 진정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은 2013년 중국의 항저우에서 열린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제회의」에서였다. 이때 채택된 「항저우 선언」에서는 문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6]

> 문화는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truly sustainable development)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가치 체계, 자원, 사고 틀을 제공하고, 과거 세대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기능을 한다. …… 문화는 의미의 근원이고, 에너지의 근원이며, 창조와 혁신의 원천이고, 우리가 당면 과제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구안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원이기도 하다. 만약 우리의 모든 발전 프로그램과 평화를 위한 노력들에서 사람-중심, 장소-중심의 접근법(people-centred and place-centred approach)이 더해진다면 문화가 진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UNESCO, 2013, 2)

여기에서 사람-중심의 접근이란 지역사회가 경험한 고유한 문화·역사적 경험과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그리고 장소-중심의 접근이란 지역사회의 물질적 토대이자 존재 기반인 특수한 지리적 환경을 이해해야 함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고 틀이자 창조와 혁신의 원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문화·역사적 경험(사람-중심의 접근)과 지리적 특수성(장소-중심의 접근)을 함께 고려하여 거기에 적합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역사회[사회], 지리적 환경[환경], 경제 발전[경제]의 연동 관계에 기초한 발전을 의미하는데, 문화는 이러한 사고를 가능케 하는 프레임이자 그것의 이행을 위한 추진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관점이다. 이를 요약하여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에서는 제3조에 '문화 다양성은 발전에 기여하는 요인의 하나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4) 인식의 미학적 전환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차이에서 다양성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인류 문화의 다양한 변이성(cultural variation)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 문제에 접근해 온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있는데, 각각 '문화적 차이'(cultural difference)와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이라는 용어로 대변된다. 이 두 가지 용어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양한 문화'라는 현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인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다양한 문화'를 장차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실천 차원에서의 차별화를 뜻하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문화, 언어, 종교, 민족 측면에서 국민의 동질성이 강한 국가들일수록 세계화에 따른 인구의 국제 이동과 외국계 노동자들의 유입 등에서 결과한 국가적 다문화 현상을 '문화적 차이'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다수자 집단의 입장에서 새롭게 유입된 소수자 집단은 주류 문화와 구별되는,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존재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의 일반적 다문화 정책 및 다문화 교육의 기조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들 국가의 정책 수행과 교육적 실천에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핵심 개념으로 표명되고, 그것은 사실상 '다수자 집단을 이해와 수용의 주체로 상정하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뜻하였다.

문화적 차이의 관점에서 바라본 소수자 집단은 흔히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는 존재, 잠재적 갈등 인자로서 간주되곤 한다(Goodhart, 2004). 그래서 다수자 집단은 소수자 집단들을 '배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잘 달램으로써 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무난한 국가시민의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받는다. 요컨대, 철학적으로는 다문화주의의 기치 아래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와 비중을 갖는다고 상정되지만, 현실적, 실제적으로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주체는 바로 다수자 집단이고 이러한 시혜의 대상은 소수자 집단이라는 한계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개념은 '국민국가의 다문화'가 아니라 '인류 사회의 문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로 하여금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를 바라봄에 있어 '문화적 차이'라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문화 다양성'이라는 긍정적 입장으로 옮겨가도록 지원한다. 이때 서로 다른 문화의 주체들로서의 다양한 문화 집단이란 '지혜와 경험의 보고이자 창조와 지속가능성의 원천'으로서 이는 기본적으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의 대상'으로 전화된다. 문화 다양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지구촌의 소위 소수자 문화는 '문화적 차이'를 야기하거나 잠정적 갈등을 조장하는 인자가 아니라 인류의 문화를 보다 풍요롭게(enriching) 만드는 데 기여하는 존재로서 보다 긍정적, 미학적 관점에서 재인식되는 것이다.

다양성을 향한 이러한 긍정적, 미학적 입장은, 우리로 하여금 '문화적 다양성과 풍성함은 서로 다른 문화 간의 대화와 교류를 유도하고 이것은 새로운 창조와 발전의 원천이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한다(UNESCO, 2001). 문화 '다양성'의 본질을 긍정과 풍요, 즉 아름다움의 시각에서 재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개념은 '차이에서 다양성으로'의 입장 변화를 뜻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다양성을 향한 인식의 미학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3. 「세계지리」 교육과정에 진술된 '문화 다양성' 개념과 교육적 실천 방안

1) 과목 목표 및 성격에 제시된 '문화 다양성' 개념

우리나라 초중고 국가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문화 다양성의 용례나 개념의 이해 수준은 학교급이나 과목별로 편차가 큰 편이다.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우, 초등학교 3~4학년 교육과정에서 '(4) 다양한 삶의 모습과 변화'이라는 대단원명이 있는데 그 아래에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이라는 중단원명이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성취기준 및 해설을 보면 그 의미는 단지 '다문화' 현상을 가리키는 사전적 의미에 머물고 있다. 즉 〈사회 변화와 다문화(현상)〉으로 바꾸어 표현해도 무방한 제목이다.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사회·문화」에서도 일부 성취기준에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용어가 확인되지만, '문화 다양성의 존중' 혹은 '문화 다양성의 다양한 양상' 등 관련 표현들을 문맥 속에서 이해할 때 여기에서의 '문화 다양성'도 '다문화' 현상을 지칭하는 가치중립적 표현일 뿐 적어도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특정한 가치 개념으로서의 문화 다양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비해 고등학교 「세계지리」 과목의 경우에는 과목 목표와 성격에서 문화 다양성 개념을 분명한 가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세계지리」 과목의 핵심 내용 요소 중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시민', '세계평화' 등 유네스코가 강조해 온 주제들과 일치하는 것들이 많은데(이경한, 2015, 45), 특히 「2015 개정 세계지리 교육과정」을 보면 문화 다양성을 세계시민의 소양과 연계시키면서 문화 다양성 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습 내용을 몇몇 성취기준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전종한, 2016, 77).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고등학교 「세계지리」는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개념을 '과목 수준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를 논의함에 있어 유의미한 과목 사례라 할 수 있다.

먼저 고등학교 세계지리 과목은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과목의 주요 목표로 기술하고 있다.[7] 과목의 성격에 있어서도 '환경과 문화의 공간적 다양성에 대한 소양은 세계시민으로서의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가치 함양에 기여할 것'이라 하여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세계시민으로서의 핵심 소양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다(교육부, 2015, 174-175). 이렇게 과목의 목표 및 성격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을 가치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나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연결하여 진술한 것은 유네스코의 용례와 상통할 뿐 아니라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개설된 여러 선택과목들 중 「세계지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2) 개별 성취기준에 반영된 '문화 다양성'의 개념

'문화 다양성' 개념은 개별 성취기준 수준에서도 다양한 의미 측면을 포용하며 재등장한다. 세계지리 과목의 성취기준과 해설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총 28개 성취기준 중 적어도 6개 성취기준에서 '문화 다양성' 개념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표 1). 이에 해당하는 성취기준들이 각각 어떤 의미의 문화 다양성을 주로 상정하고 있는지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계지리 성취기준 [12세지 02-02]는 문화 다양성 개념에 함축된 여러 의미 측면 중 생물 다양성에 기초한 아날로지로서의 문화 다양성, 곧 '이념으로서의 문화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 성취기준은 '세계의 다양한 기후 환경에 각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하였는지 그들의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파악해보자.'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의 상관성' 가설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성취기준 [12세지 04-01]과 [12세지 05-01] 역시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화 다양성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다만 몬순 아시아,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등의 주요 권역(realm)을 사례로 탐구하자고 하여 지역적 차이의 관점에서 비교해 볼 것을 모종의 심화 학습 단계로서 구성하고 있다.

성취기준 [12세지 03-01]은 '표상으로서의 문화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 주요 종교의 성지나 종교 경관은 해당 종교의 고유한 상징적 의미들을 담고 있으므로 주요 종교별로 그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해보자.'는 진술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종교별 성지나 상징 경관을 의미와 관념의 담지체, 즉 문화적 표상으로서 인식할 것을 안내하는 성취기준인 것이다. 이와 비슷한 문화 다양성 개념은 성취기준 [12세지 04-03]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이 성취기준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및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이 자주 보고되는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권역을 주요 사례로 지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지역 쟁점의 맥락에서 그것에 접근해보자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성취기준 [12세기 08-03]에는 '비전으로서의

표 1. 개별 성취기준에 반영된 '문화 다양성'의 의미 측면

개별 성취기준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의미 측면
성취기준 번호	성취기준 내용	
[12세지 02-02]	온대 동안 기후와 온대 서안 기후의 특징 및 요인을 서로 비교하고, 이러한 기후 환경에 적응한 인간 생활의 모습을 파악한다.	'이념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12세지 03-01]	세계의 주요 종교별 특징과 주된 전파 경로를 분석하고, 주요 종교의 성지 및 종교 경관이 지닌 상징적 의미들을 비교하고 해석한다.	'표상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12세지 04-01]	몬순 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생활 모습을 지역의 자연환경과 관련지어 탐구한다.	'이념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12세지 04-03]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주요 국가들에서 보이는 민족(인종)이나 종교적 차이를 조사하고, 이로 인한 최근의 갈등과 해결 과제를 파악한다.	'표상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12세지 05-01]	건조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전통적 생활 모습을 지역의 자연환경과 관련지어 탐구한다.	'이념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12세지 08-03]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한 지구촌의 주요 노력들을 조사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한 세계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와 태도에 대해 토론한다.	'비전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인식의 미학적 전환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문화 다양성'과 '인식의 미학적 전환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개념이 녹아 있다. 교육과정 문서에서 이 성취기준이 포함된 대단원 설명을 보면, '이 단원은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 · 태도 및 문화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갖게 하는 데에 학습의 주안점이 있는 단원이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생태적 관점과 세계시민으로서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해 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평가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여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발전, 즉 '비전으로서의 문화 다양성'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교육부, 2015, 192).

그리고 이 성취기준의 해설 내용에 의하면, '세계의 각 지역은 영유권이나 민족(인종) 및 종교적 차이, 자원 분포의 불균등 등으로 인해 상호 긴장이나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세계화가 더욱 진행되면서 지구라는 동일한 환경 속에서 공존해야 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한다. 세계 각 지역 및 국가의 사람들은 상호 공존과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교육부, 2015, 191). 즉 인류를 공존할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로 규정하고 다양성을 풍요로운 것,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인식의 미학적 전환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개념을 상정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3) '문화 다양성'의 함축을 이해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와 활용 방안

(1) '이념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학습 주제, 목표, 내용의 예시

'이념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교수학습에서는 자연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갖는 가치에 비추어 인류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이 갖는 가치를 유추해보고 양자의 상호 관련성을 살필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의 상사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 된다. 이를 위한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자료의 예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습 주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문화 다양성도 높다."

② 학습 목표

-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양자의 상호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지식).
- 생물 다양성이 문화 다양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지역을 세계지도에서 확인하고 위치적 특징과 다양성의 내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기능).
-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의 상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가치 · 태도).
- 기타: 우리나라에서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의 상관성이 두드러진 지역 사례를 찾아 그 내용을 조사하고 일상 속에서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한다(참여 · 실천).

③ 교수학습 자료

- 학습의 핵심 내용

> 지구상의 많은 동물과 식물, 미생물들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각자가 처한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종으로 분화를 거듭해왔고 그 과정에서 각각 오늘날의 생태계를 이루는 한 요소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현재의 생물 다양성은 길게는 수 백 만 년 이상에 걸친 역동적 적응 과정의 결과로서, 생물 다양성을 구성하는 수많은 종들은 그 자체로 생존과 번성과 지속가능성의 열쇠를 간직한 존재들이다.
>
> 인간 사회도 이렇게 전지구적으로 다양하고, 다변화된 자연 환경에 오랜 적응 과정을 거쳐 생존해 온 존재로서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역마다 특수한 자연 환경 및 활용 가능한 자원의 한계는 그곳 지역민들의 고유한 삶과 사회와 문명이 자라난 기본 토양이었다. 따라서 전지구적 규모에서 정치, 종교, 사회, 경제를 포함한 인류 문화의 다양성은 지역별로 특수한 자연 환경 및 자원 조건이 제공한 기회와 제약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이다.
>
> 이처럼 문화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을 반영한다. 문화 집단마다 삶의 경험과 유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자연 환경 및 자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평가 또한 차별적이므로, 문화 다양성은 생물 다양성과 동기화 관계에 있다고 할 만큼 서로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적으로 언어 다양성이 풍부한 상위 9개 국가 중 7개 국가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상위 17개 국가 안에 들어 있다고 하면서 이점을 증명한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5, 40). 이와 같이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인류 전체와 지구 환경에게 있어 현재 및 미래의 번영을 위해 둘 중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 기본 읽기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5, 지구의 언어, 문화, 생물 다양성 이해하기; 기타 자료 – UNESCO and UNEP, 2002, Cultural Diversity and Biodiversity; UNESCO, 2007, Links between Biological and Cultural Diversity.
- 자료 활용상의 주안점
  이들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글로벌 규모의 관점이 중요하다. 세계지도에서 생물 다양성과 문화 다양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 지역 사례를 추출하되 가능하면 국가군이나 자연지역(예. 기후지역)에 준한 공간 규모로 선택한다.

④ 관련 성취기준

[12세지 02-02], [12세지 04-01], [12세지 05-01]

※ 적용상 유의점: 각 성취기준에서 개념 이해(도입) 단계에 적용하되, 성취기준에 따라 지역 사례를 다양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표상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학습 주제, 목표, 내용의 예시

'표상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교수학습에서는 가령 문화경관과 같이 문화 다양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는 표상들의 대표적 사례를 조사하고 그러한 물질 문화(유형 문화)와 연루되어 있는 비물질 문화(무형 문화)의 세계를 탐구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 된다. 이를 위한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자료의 예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습 주제

"모든 가시적 문화경관에는 무형의 비가시적 문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② 학습 목표

- 문화 경관의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유형(범주)을 구분할 수 있다(지식).
- 세계지도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 경관 유산의 분포를 확인하고, 관심 있는 사례를 선정하여 문화 경관에 내포된 무형 문화를 해석할 수 있다(기능).
- 문화 경관에 담긴 다양한 무형 문화에 관심을 갖고 경관 주체의 입장에서 문화 경관의 가치를 공감할 수 있다(가치 · 태도).
- 기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 경관을 선정하여 현장 답사 및 문화 행사 참여를 통해 물리적 경관 요소와 무형적 문화 요소가 어떻게 연관 혹은 결합되어 있는지 체험한다(참여 · 실천).

③ 교수학습 자료

- 학습의 핵심 내용

> 모든 문화 집단은 자신들의 무형 문화를 가시적인 물질 경관, 즉 문화 경관을 통해 드러낸다. 세계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 경관은 인류의 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물질적 표상인 것이다. 세계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전통 촌락의 모습, 역사 도시 경관, 독특한 토지 경작 패턴(형태)은 지역민들의 고유한 인간-자연 관계, 의례, 종교나 신념, 토착 지식이나 전통 기술 등의 무형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
> 따라서 우리는 어떤 지역의 문화 경관을 통해 그것을 만들고 유지해 온 경관 주체의 무형 문화를 탐색할 수 있다. 각 지역의 문화 경관에는 한 문화 집단의 오랜 삶의 경험과 관념의 세계, 지금까지 축적해 온 전통적 지식과 지혜, 생존을 위해 고안한 적응 전략과 창조성, 집단적으로 추구해 온 어떤 이상이나 신념, 종교, 문화 ·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등의 무형적인 문화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
> 나아가, 문화 경관은 한 문화 집단이 만들어 낸 산물이면서 동시에 그 문화 집단 자체와 그들의 고유문화를 재생산하고 지속시켜주는 동인으로도 작용한다. 문화 집단의 구성원들은 고유의 문화 경관을 일상적으로 체험하면서 자기 문화를 향한 애착과 소속감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문화 집단의 일원이 되어 가기 때문이다.

- 기본 읽기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7, 세계유산, 새 천년을 향한 도전; 유네스코 세계 문화 경관 유산, 홈페이지(http://whc.unesco. org/en/culturallandscape/#1).
- 자료 활용상의 주안점

  이들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국내외의 주요 사례를 통해, 문화 경관이라는 물질적 차원 속에 숨어 있는 종교나 이상, 이데올로기, 전통 지식, 세계관, 문화 간 교류의 흔적 등의 무형적 차원들을 탐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문화 경관에 내재된 무형적 차원들이 지역민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향유되고 전승되는지, 즉 문화 집단의 재생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게 하는 활동도 요구된다. 전통 촌락 경관, 역사 도시, 종교 경관, 묘지 경관 등의 인문 경관뿐만 아니라, 일견 자연 경관인듯 하지만 실제로는 문화 경관으로 분류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성지 '울루루 바위', 일본인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준 '후지산', 우리나라 사람의 민족 기원 및 국토애를 담고 있는 '백두대간' 등도 '표상으로서의 문화 다양성'을 탐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들이 된다.

④ 관련 성취기준

[12세지 03-01], [12세지 04-03]

※ 적용상 유의점: 각 성취기준의 개념 이해(도입) 단계에 적용하되, 성취기준에 따라 지역 사례를 다양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3) '비전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학습 주제, 목표, 내용의 예시

'비전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교수학습에서는 문화 다양성이 현재와 미래 세계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주는가에 관해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특히 문화 다양성이 인간과 자연의 공존, 다양한 인류 문화의 공생을 위해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자료의 예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습 주제

'문화 다양성'의 사례들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류의 비전으로 제시한다."

② 학습 목표

-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지식).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유지한 세계 주요 지역의 가옥 경관, 취락 경관, 토지 이용 경관 등을 사례로 자연 환경의 차이에 따른 생활 방식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기능).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갖는 가치를 바탕으로 인류의 다양한 전통적 생활 방식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가치 · 태도).
- 기타: 우리나라의 산간지나 해안가에 분포하는 계단식 논 경관, 서해안의 독살 경관이나 남해안의 죽방렴, 전통 가옥의 주요 건축재, 전통 마을의 공간구조 등을 사례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삶의 지혜와 기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의 보존 가치에 대해 토론한다(참여 · 실천).

③ 교수학습 자료

- 학습의 핵심 내용

> 인간과 자연의 공존은 인류 전체와 지구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바탕이 된다. 세계 각 지역의 문화는 지역민들이 각양의 자연환경에 적응해 온 고유한 경험, 토착 지식, 전통 기술, 자연관을 갖고 있다. 인류의 다양한 문화는 그 자체로 인간이 다양한 자연 조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고 자연과 공존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이다.
>
>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계단식 논 경관에는 험난한 산악 환경 속에서 급사면의 붕괴를 막고 산지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케 했던 고도의 물 관리 기술, 작물의 선택과 재배 기법, 재래의 토지 이용 방식 등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가능케 한 지역민들의 전통 지식과 기술, 자연관이 스며있다.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안데스 산맥의 고산 환경에 처했던 인디오에게서, 열대의 울창한 밀림 속에서 살아온 원주민에게서, 건조한 사막과 초원의 유목민들에게서, 혹한의 기후 환경에서 살아남은 알래스카의 에스키모나 캐나다 북부의 이누이트에게서,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문화 경관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같은 인류의 문화 다양성이 현대 지구촌에 위협을 가하는 주요 환경 쟁점들을 헤쳐 나가거나, 미래의 인류가 직면할지 모르는 불시의 환경적 사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 유용한 지혜를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문화 다양성'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인간, 환경, 경제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류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다.

- 기본 읽기 자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코르딜레라스(필리핀)의 계단식 논'; '그랑프레(캐나다) 경관'; '리흐터스펠트(남아프리카공화국) 문화 및 식물 경관'; '마드리우-페라피타 클라로 계곡(안도라)'; '메이만드(이란)의 문화 경관'; '발

리(인도네시아)의 문화 경관'; '블루 앤 존 크로우 산(자메이카)'; '비날레스 계곡(쿠바)'; '수쿠르 문화경관(나이지리아)' 등의 사례를 검색하여 학습(http://heritage.unesco.or.kr/whs/).

- 자료 활용상의 주안점
  위 홈페이지(유네스코와 유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세계문화유산 목록과 함께 각 유산의 내용을 소개해 준다. 세계문화유산 중 특별히 문화경관으로 명명되거나 분류된 것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조사해보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 온 세계 각 지역의 의미 있는 사례들을 찾아낼 수 있다. 다양한 자연 환경 조건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정착하고 적응하였으며, 자연과 공존할 수 있었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조사하고 토론하는 것에 학습의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④ 관련 성취기준

[12세지 08-03]

※ 적용상 유의점: 성취기준의 개념 이해(도입) 단계에 적용하고, 세계 각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하며 탐구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음.

(4) '인식의 미학적 전환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학습 주제, 목표, 내용의 예시

'인식의 미학적 전환으로서의 문화 다양성'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교수학습에서는 다양한 문화, 특히 국내외의 소위 소수자 문화를 대함에 있어서 그들 역시 인류 공동체의 문화적 풍요와 역량을 증진시키는 주체의 하나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들을 배려의 대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존중의 대상으로 재인식하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 이를 위한 적합한 사례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기원한 카니발이라는 문화 행사일 것이다. 이에 관한 학습 주제, 학습 목표, 교수학습 자료를 예시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습 주제

"카니발, 문화 다양성을 공동체의 향연으로 승화시키다."

② 학습 목표

- 카니발의 탄생 배경과 카니발을 구성하는 문화 다양성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지식).
- 세계 지도에 카니발의 기원지와 확산 경로를 표시하고, 확산의 주된 계기를 분석, 추론할 수 있다(기능).
- 다양한 사례의 카니발을 통해 문화 다양성이 지니는 아름다움의 가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가치·태도).
- 기타: 민족, 종교, 언어의 차이를 축제로 승화시키는 세계 각 지역의 주요 사례들(예. 말레이시아의 '컬러 오브 말레이시아' 축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모의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참여·실천)

③ 교수학습 자료

- 학습의 핵심 내용

원래 가톨릭 교단의 종교 행사 중 하나를 일컫는 용어였던 카니발은 오늘날 '모두를 위한 문화 다양성의 향연'으로 재탄생하였다. 세계의 카니발 중 단연 최고라 할 수 있는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은 식민지 시기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가톨릭 종교 행사에 아프리카계 흑인 노예들의 타악기 연주, 그리고 남미 인디오들의 전통적 행위 예술이 결합되어 인종(민족)과 종교와 언어의 차이를 불문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문화적 주체들이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승화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종류의 카니발은 남아메리카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으며, 세계화에 따라 남미 및 카리브 해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이주하면서 북미와 유럽 등 세계 다른 대륙들에 전파되었다. 카리브 해의 트리니다드 카니발을 비롯해 캐나다 토론토의 카리바나 카니발, 미국 뉴욕의 노동절 카니발, 유럽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영국 런던의 노팅힐 카니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영국의 경

우 대부분의 주요 도시들에서 남미와 카리브 해 계통의 카니발이 열리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세계의 카니발은 세계 3대 인종인 백인과 흑인과 황인(남미 원주민)의 공존, 가톨릭과 아프리카 전통 신앙과 토착 신앙의 결합,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탄생한 리듬과 춤과 음악의 향연을 통해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를 넘어 문화적 혼종성을 다 같이 향유하는 장이다. 카니발은 문화적 차이를 공동체가 함께하는 다양성의 향연으로 승화시키고 아름다움의 관점에서 모든 문화집단을 포용하는 축제의 공간인 것이다.

- 기본 읽기 자료: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 도구 이용 – '리우 카니발', '트리니다드 카니발', '뉴욕 노동절 카니발', '토론토 카리바나 카니발', '런던 노팅힐 카니발' 등 남미 계통의 주요 카니발을 사례로 검색하여 학습.
- 자료 활용상의 주안점
  남미 계통의 카니발의 기원 배경과 주요 행사, 카니발의 참여자와 참관자가 추구하고 누리는 것들 등을 통해 문화적 차이가 문화 다양성으로 재탄생하고 재발견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남미 및 카리브 해 주민의 디아스포라를 통해 카니발이 세계 어느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각 도시의 카니발이 행사 주체(문화 집단)의 문화적 재생산과 정체성 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④ 관련 성취기준

[12세지 08-03]

※ 적용상 유의점: 남미 계통의 카니발과 가톨릭의 사순절 직전 행사(가톨릭 카니발)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4. 맺음말

「세계지리」는 주요 개념의 발굴과 적용, 계통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의 상보적 교직, 지역적 쟁점 중심의 접근 등에 기초하여 독자적 학문 분야로 그리고 교과목으로서 고유한 내재적 목표와 내용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전종한, 2015, 192-193; 2016, 76-78). 이렇게 발전시켜 온 고유한 목표와 내용 체계를 바탕으로, 「세계지리」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및 다양한 인류 문화의 공생과 평화라는 국제사회의 시대적 요구들에 부응하고 이를 적극 감당할 때 고유한 학문 분야로서, 독립 교과목으로서의 가치를 보다 확고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로 인한 지구 환경의 위기, 세계화에 따른 인구의 국제 이동과 난민의 발생,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내외의 긴장 상황과 국제사회의 평화를 향한 고민 등이 지구촌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화 다양성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세계 시민의 핵심 소양으로 자리 잡게 하는 과업'에 무엇보다 국민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여 글로벌 스케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야로서 「세계지리」가 기여해야 하는 몫이 분명히 있다.

사실 문화 다양성은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선언」(2001)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이미 국제 지리교육계가 지리교육의 핵심 주제 중 하나로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2000년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린 제29회 세계지리학대회 지리교육 분과위원회는 「문화 다양성을 위한 지리교육 국제 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n Geographical Education for Cultural Diversity)」(2000)을 내놓았다(http://www.igu-cge.org/charters_2.htm). 이 선언문은 '세계인으로 하여금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에 지리교육이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지리학은 (내가 살아온) 우리 장소를 세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 교류하고 자연과는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국지적, 지역적, 글로벌 스케일에서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이해, 상호작용, 평등과 정의를 촉진하며 제고한다.
- 모든 학생들은 지리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를 통해 지리적 소양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가치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
- 모든 지리학자와 지리교육자는 자연 환경과 (인류의) 발전을 저해하는 미래의 도전들에 맞서서 세계의 지리교육을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국제사회 지리교육계의 문화 다양성 개념은 글로벌 스케일에서 세계 각지 사람들 사이의 문화적 이해와 교류,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네스코의 지향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문화 다양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사회와 환경', '평등과 정의', '지역과 세계'라는 인류 보편의 주제들과 연관시키려는 관점에서 조명한다.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에 접어들어 북미와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주제로 한 지리교육계의 연구와 실천이 크게 강화되어 왔다. 따라서 지리교육, 특히 인류 사회의 문화적, 환경적 다양성을 주된 콘텐츠로 삼는 「세계지리」 교육에서 문화 다양성의 연구와 교육을 감당하는 것은 적절하고도 당위적인 것이다.

문화 개념의 갱신 과정을 통해 이미 살펴본 것처럼, 유네스코가 국제 사회의 화두로 제시했던 핵심 개념들은 그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불변의 개념 정의를 고집하지도 않는다. 유네스코는 주요 개념들의 가치와 의미를 개인 학자와 기관, 국제 사회에 열어 놓고 그에 대한 참여 및 평가를 유도함으로써 해당 개념들의 보편성을 담보하고자 기도한다. 형식은 유네스코가 주도해 왔지만 그 내용은 유네스코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닌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유네스코의 문화 다양성 선언」(2001)에 나타난 문화 다양성 개념은 「문화 다양성을 위한 지리교육 국제 선언」의 그것과 밀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은 다문화 교육과 혼동되기도 하고 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으로 한정되기도 하는 등 아직 제대로 된 모습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화 다양성의 한국적 양상을 논의하는 국면에서, '문화 다양성' 개념이 21세기 국제 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게 된 배경 및 교육적 취지를 망각할 경우 자칫 기존 다문화 교육의 주요 연구 주제들과 중복된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특별하고 세심한 개념 탐구가 요구된다. 또한 문화 다양성 개념의 함축적 의미들은 문화 다양성의 한국적 양상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 논점과 방향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긴요하다.

문화 다양성 개념의 교육적 실천 차원을 가리키는 문화 다양성 교육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케일',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인류의 다양한 문화'라는 관점에서 주로 인종(민족), 종교, 언어, 생활양식의 차이에 따른 인류 문화의 변이성과 교차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 다양성은 풍요로움의 상징, 문화적 고유성을 보여주는 표상, 인류의 공동 유산, 인류 미래의 비전으로 이해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제 사회는 문화 다양성을 구성하는 인류의 모든 문화를 항상적 가치를 지닌 '보존과 존중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학교 교육에서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내용 지식을 가장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온 주요 과목을 거론한다고 했을 때 「세계지리」를 빼놓을 수 없다. 국내외에서 공히 「세계지리」는 환경과 문화의 공간적 다양성에 관련된 지식을 주된 교육 내용으로 구성해 왔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세계지리」는 특정 자원의 주요 생산지나 지역 특산품을 암기하게 하는 것과 같은 구시대적 학습에서 탈피하여, 지식, 공감, 실천의 결합을 통한 핵심 역량의 증진을 목표로 환경과 문화의 공간적 다양성에 관해 학습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에서 문화 다양성은 범교과 주제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범교과 주제들의 교육 실상이자 한계는 어느 교과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주제들이라는 점이다. 문화 다양성과 같은 범교과 주제들이 학제적으로, 교육적

으로 의미 있게 다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교과목의 성취기준을 개발할 때 해당 교과목의 고유한 목표 및 내용에 맞닿는 성취기준과 함께 범교과 주제들을 염두에 둔 성취기준의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세계지리」의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는 개인 연구자뿐 아니라 학회와 같은 관련 기관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 평화와 정의 등의 범교과 주제들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 사회적,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새로운 범교과 주제들을 주도적으로 제안하며, 이들을 위한 성취기준의 개발, 교육용 콘텐츠 구축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주

1) 북미 대륙의 학자들은 문화 다양성 개념을 '민족(인종), 종교, 언어 등 자국민들의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을 지칭하는 용어로, 서부 유럽의 여러 나라 중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자문화 보호주의'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박선희, 2009).
2)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을 살펴보면, 본문 조항들에 앞서서 세계 인권 선언, 유네스코 헌장, 문화 개념에 대한 유네스코의 정의 등을 선언문의 대전제로 제시하고 있고, 특히 이 선언문의 제4조에는 '인권은 문화 다양성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human rights as guarantees of cultural diversity)이라 제시하고 있다(UNESCO, 2001).
3) 이 점을 볼 수 있는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Cultural Interchanges, include: first, a group of resolutions in the fields of arts and letters; secondly, work on translation and collections of great books; thirdly, resolutions in the fields of philosophy and the humanities, and fourthly, museums(UNESCO, 1947, 9).
4) 'Culture may now be said to be the whole complex of distinctive spiritual, material, intellectual and emotional features that characterize a society or social group. It includes not only arts and letters, but also modes of lif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human being, value systems, traditions and beliefs(UNESCO, 1982, 1).'
5) 'it is culture that gives man the ability to reflect upon himself. It is culture that makes us specifically human, rational beings, endowed with a critical judgement and a sense of moral commitment. It is through culture that we discern values and make choices. It is through culture that man expresses himself, becomes aware of himself, recognizes his incompleteness, questions his own achievements, seeks untiringly for new meanings and creates works through which he transcends his limitations(UNESCO, 1982, 1).'
6) UNESCO, 2013, 「The Hangzhou Declaration Placing Culture at the He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7) 2015 개정 세계지리 교육과정의 목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첫머리에 제시되어 있다: "세계지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세계의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상호 관계, 그리고 문화, 정치, 경제 등 지역 내 여러 현상들 간 연계성의 관점에서 세계 각 국가나 권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의 공간적 다양성을 염두에 둔 상호 공존의 세계를 추구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문화 다양성의 가치에 기초한 글로벌 리더십을 지닌 인간을 기르는 데에 목표를 둔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5, 2015 개정 사회과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박동준, 2010, "유럽연합의 문화통합과 문화적 예외 그리고 문화 다양성," 유럽사회문화, 5, 59-99.

박선희, 2009,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과 프랑스의 전략," 한국정치학회보, 43(3), 195-217.

박윤경·류상희·이은주, 2015, "지역사회의 문화다양성 및 외국이주민에 대한 태도: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9(3), 24-4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5, 지구의 언어, 문화, 생물 다양성 이해하기.

이경한, 2015,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과 세계지리의 연계성 분석,"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45-75.

이기숙, 2008, "문화다양성과 가족생활교육," 여성연구논집, 19, 211-242.

이길용, 2011, "문화 다양성 사회의 의사소통 연구 –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 다문화콘텐츠연구, 10, 49-74.

이은희, 2014,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다문화교육과 가정과교육의 통합적 접근," 한국교육문제연구, 32

(3), 69-90.
임진영 · 권혁일 · 류미해 · 김병수, 2015, "문화적 다양성 교육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15(9), 415-434.
전종한, 2013,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본 국가 유산의 가치 평가와 범주화 연구: 문화재청 지정 국가 '명승'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6), 929-943.
전종한, 2015, "세계지리에서 권역 단원의 조직 방안과 필수 내용 요소의 탐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1(1), 192-205.
전종한, 2016, "2015 개정 세계지리 교육과정의 개발 과정과 내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71-8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a,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 개발 연구 –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대상 –, 연구보고서 KACES-1240-R02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b,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 개발 연구 – 초중등교사 대상 –, 연구보고서 KACES-1240-R02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a, 문화다양성 교육 매뉴얼, 연구보고서 KACES-1370-TP007.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b, 지역 생활문화예술과 문화다양성, 연구보고서 KACES-1431-C059.
UNESCO, 1947, *Resolutions - adopted by the general conference during its second session*.
UNSECO, 1982, *Declaration of Cultural Policies*.
UNESCO, 2001,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UNESCO, 2002,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Cultural Diversity Series No.1.
UNESCO and UNEP, 2002, *Cultural Diversity and Biodiversity*.
UNESCO, 2003, *Sharing a World of Difference - the Earth's linguistic, cultural and biological difference*.
UNESCO, 2007, *Links between Biological and Cultural Diversity*.
UNESCO, 2013, *The Hangzhou Declaration Placing Culture at the Heart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ies*.
Goodhart, D., 2004, Too Diverse?, *Prospect* (Online), Available at http://www.prospectmagazine.co.uk/2004/02/toodiverse-david-goodhart-multiculturalism-britainimmigration-globalisation/>
Grant, C., 2012, Analogies and Links between Cultural and Biological Diversity, *Journal of Heritage Manag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2), 153-163.
Maffi, L.(ed.), 2001, *On Biocultural Diversity*,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http://heritage.unesco.co.kr)
문화 다양성을 위한 지리교육 국제 선언, 홈페이지(http://www.igu-cge.org/charters_2.htm)

교신: 전종한, 407-75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이메일: jonghan@gin.ac.kr)
Correspondence: Jong-Han Jeon,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62 Gyesan-ro, Gyeyang-gu, Incheon 407-753, Korea (e-mail: jonghan@gin.ac.kr)

최초투고일 2016. 7. 3
수정일 2016. 7. 31
최종접수일 2016. 8. 9